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zing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Working Mothers

김 기 현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Kim, Ki-Hyun  
Dept. of Child Study and Welfare, Woosuk Univ.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recognized by the working mothers, and associated variables systematically. For the purpose, I analyzed the demographic of the working mothers and surrounding variables at the levels of microsystem, mesosystem, and macrosystems, to relate with respect to the parenting stress problem.

The research composes the sample space of working mothers having children less than 6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 based on frequency, percentile, Pearson's correlation, hierachical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effects of diverse ecological systematic variables, there are shown that 11 independent variables can describe about 55.6% of the parenting stress of the working mothers. Among these variables, 'satisfaction about the child care'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which covers about 34.5%. Additionally, the next significances are observed from such variables as 'temperament of children' (8.2%), 'satisfaction of marriage' (5.1%), 'support of spouse' (1.5%), 'level of education' (1.9%) and so on.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mpensate and restructure the child care systems more systematically, to afford more reliable parenting environment to the dual earner mothers and fathers and children simultaneously.

**Key Words** : working mother, parenting stress, ecological approach

---

Corresponding author: Kim, Ki-Hyun  
Tel. (0652) 290-1413, HP. 011-659-9063  
E-mail : khkim@core.woosuk.ac.kr

## I. 서론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 과정 속에서 부모-자녀관계도 점차 어려워지며, 자녀양육을 통한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정보와 구체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가족은 서구 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되고 있으나 실제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경향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자녀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지지 체계의 축소는 다른 가족원의 도움 없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자녀양육을 수행해야만 하며, 이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분담이 증가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를 부부 공동의 관심사로 나누어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Lamb, 198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자녀양육의 주 책임은 어머니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bidin(1990), Crnic과 Greenberg(1990), Deater-Deckard와 Scarr(1996), 그리고 신속재(1997)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연구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Webster-Stratton의 연구(199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동의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경제적 곤란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일상 생활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로 행해졌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과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규명

해 왔다(Abidin, 1990 ; Belsky, 1984 ; Mash & Johnston, 1990). 특히 Belsky (1984)는 아동의 인성이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가 겪는 사회 관계망에서의 스트레스라고 규정하였으며, 부모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도움을 주는 주변상황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Abidin(1990)은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으며, 박용임(1995)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로 하여금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어오면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환경 역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가족의 증가현상을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에서의 남녀간의 분리되었던 역할영역을 깨뜨리고, 부부간의 보완적이던 역할관계와 가족생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취업모는 일과 가족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어머니 역할, 주부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모가 겪는 가장 어려운 역할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이영, 1986) 현실을 고려할 때, 취업모의 자녀 양육 환경과 나아가 심리적, 정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게 제작된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김기현·강희경, 1997)에 의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변인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연구모형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취업모를 돕기 위한 개입 전략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관련 연구의 고찰

### 1. 양육 스트레스

모든 인간은 생활주기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Webster-Stratton(1990)은 스트레스를 부모-자녀 관계의 잠재적 방해요소로 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는 이 모델에서 두 가지 요인을 규명하였는데, 하나는 스트레스 반응을 중재하는 보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취약 요인이다. 보호요인에는 사회적 지지, 지지적인 가족체계, 부모의 심리적 건강, 행복한 유년기 등이며, 취약요인에는 사회적 고립, 비지지적 가족체계, 우울한 아동기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Mash와 Johnston(1990)은 양육 스트레스를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요소를 지닌 복합적 개념으로 보았으며, 과잉 행동아의 가족과 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양육 스트레스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은 환경의 특성,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하며 이런 요소들이 유의한 장애를 지닌 학령기 아동의 가족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부모-자녀간 스트레스, 부모와 아동 그리고 환경 특성간에 상호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복합적 구성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양육 스트레스 요인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2.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 1) 생태학 이론

인간 생태학 이론은 유기체인 인간(human unit)과 환경(environment), 그리고 이 양자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중심개념으로 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나아가 유기체와

환경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 시각의 이론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생태학 이론은 사람들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다는 어떤 상황 조건에서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윤종희, 1994).

Bronfenbrenner는 그의 이론에서 최인접 환경인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세분화하였다.

미시체계는 생태학적 환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체계로, 성장하는 개체와 인접환경이 맺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이다. 이 체계는 변화하는 개체가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역할 및 대인 관계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서 특정한 시점에서 성장하는 개체를 포함하는 주요 환경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다. Bronfenbrenner는 아동 발달은 이러한 장면들간의 상호 연결에 의해 촉진된다고 설명하였다.

외체계는 중간 체계가 확장된 것으로서 아동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장면이나(부모의 직장 등) 아동의 접촉이 제한된 영역(부모의 친구, 친척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 환경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내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

한편 거시체계는 성장하는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환경을 지칭하지 않으며, 대부분 비형식적이며 사회 구성원의 정신 세계 속에 내재되어 관습과 일상 생활 습관으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각 환경 체계별로 변인을 추출한 뒤 이 변인에 의거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 2)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변인

##### (1) 유기체 변인

본 연구에서 유기체 변인은 취업모 관련 변인들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취업모의 연령, 교육 수준, 부모효능감, 완벽성 변인을 유기체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의 연령을

전반적인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Belsky, 1984).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 양육방법에 따른 자신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과도 관련되는 변수라는 면에서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수로 볼 수 있다. 선미정(1994)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언변인을 부모의 교육수준이라고 보았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적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제적 능력을 가지며 나아가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Barnett과 Baruch(1987)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이 더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Mash & Johnston, 1989), 이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Frost, Lahart 그리고 Rosenblate(1991), Mitchelson과 Burns(1998)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취업모의 완벽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유기체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Mitchelson 등(1998)은 취업모의 이중역할에 따른 스트레스와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모의 완벽주의는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양육 스트레스에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하는 어머니가 비현실적으로 자식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완벽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느끼는 고통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완벽주의는 정신 건강 전반에 걸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아직 단일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완벽주의가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미시체계 변인

미시체계는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여 상호작용

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구조로서 유기체가 몸담고 있는 인접환경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인 취업모의 가족(원가족, 생식가족)변인, 직장 변인, 그리고 자녀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먼저 원가족과 관련된 변인으로, 어머니 자신의 유년기에 대한 지각은 현재 부모로서의 자신의 양육 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임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즉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였던 성인들은 본인의 자녀와 상호작용시 더욱 많은 정서적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며(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 이와는 반대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거부된 기억을 가진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게 체벌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한다(Crockenberg, 1987).

생식가족과 관련된 변인 중 먼저 수입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Bernard(1976)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Deater-Deckard(1996)의 연구에서, 수입은 부모 모두에게 있어 양육 스트레스 관련변인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Lavee, Sharlin & Katz(1996)는 가족의 경제상태는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된다고 보았다.

한편 Turner와 Avison(1985)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의한 사회적 지지는 대처를 수월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Burke(1978)는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지지와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관련이 있어서 배우자의 도움에 만족할수록, 특히 남편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할 때 결혼의 질은 높아지며, 취업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는 가장 근본적인 지지원이 되며 부부간의 부조화는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보았다(Frey, Greenberg & Fewell, 1989).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과 재정적 부담, 시간부족, 활동제약 등의 문제를 동반하므로(Lavee et al., 1996) 자녀수는 양육 스트레스 관

련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 형태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면, 먼저 최승순(1987)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일 때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더 많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장병옥(1986)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스트레스 양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탈 확대가족화 되면서 자녀양육의 문제에 따른 부부간의 의견대립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긴장이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 뿐 아니라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유발 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산물이다. 아동관련 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기질을 들 수 있는데, Mash와 Johnston(1990)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과 비슷한 행동 유형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과잉 활동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속되는 아동들의 불순응성과 반항으로 인하여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귀인 양식(negative attributional Style) 및 이와 관련된 무력감, 무반응 및 위축으로 특징 지워지는 낮은 부모효능감(low parenting efficacy)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녀의 출생순위와 성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은 가족발달 주기에서 긍정적인 전환으로 기능하지만 자녀의 출생에 수반된 생활의 변화, 즉 지출의 증가, 수면시간의 부족이나 방해, 부모 자신만을 위한 시간의 감소 등이 부모들에게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각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따라서 출생순위와 성별은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대부분 직업적 성취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므로 직업에 대한 태도는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판단된다.

### (3) 중간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양육참

여 여부, 보육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중간체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조부모의 양육참여 여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경우 대체로 확대가족을 통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크고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양육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있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 및 양육 참여 여부에 따른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보육에 대한 만족여부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Neal, Chapman, Ingersol-Dayton & Emlen(1993)의 연구에서는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강희경(1998)의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취업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판단된다.

### (4) 거시체계 변인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주된 책임이 부부중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부모역할관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뿌리깊고, 여성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온 가부장적이며 가족주의적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우리나라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우리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가족주의가 정착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통적인 부모역할관을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머니가 취업으로 인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녀양육만은 가족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데(정진경, 1991), 이는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유형에 있어 가족원에 의한 보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백경임·강희경, 1995)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또한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해 불공평을 지각하고 불만족이 증가할 경우 가족의 정서적 복지 및 결혼안정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Blair & Johnson, 1992).

또한 자녀양육 가치관은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의미를 밝히는 일이며, 자녀양육 가치관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Stabenau(1973)는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부모의 기대감이 다름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 발달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자녀양육에 따른 기대나 어려움의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의 여부는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자녀교육의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생태학적 변인들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모형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Mash와 Johnston (1990)의 모델, 그리고 Abidin(1992)의 부모의 양육행동 모델 등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환경 세분화 체계에 따른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유기체 변인은 연구대상이 지닌 변인으로 취업모의 연령, 교육수준, 부모효능감, 완벽성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미시체계 변인은 유기체가 몸담고 있는 인접환경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변인으로 유년기 행복도를, 생식가족 변인으로 배우자의 지지, 결혼만족도, 자녀수, 가족형태 변인을, 자녀관련 변인으로 기질, 성별, 연령, 출생순위 변인을, 그리고 직장 관련변인으로 직업 유형과 직무만족도 변인을 선정하였다.

셋째, 중간체계 변인은 미시체계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중간체계 변인은 원가족간의 상호관계인 조부모 양육 여부와 생식가족간의 상호관계인 보육만족도 변인이 포함된다.

넷째, 거시체계 변인은 인간과 직접적인 교류는 없으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관과 자녀가치관을 선정하였다.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 3. 연구대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본 연구를 위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전라북도의 행정구역 중에서 3개 시와 3개 군을 임의로 선정한 뒤 각 기관의 원장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 다양한 직종의 취업모가 표집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총 30기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하였다. 총 500명의 취업모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나 누락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405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투입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

배경변인	범 주	빈 도(%)
연령	35세 미만	279 (68.8)
	35세 이상	126 (31.1)
	평균 (SD)	33.6 (3.4)
교육 수준	고졸	183 (45.1)
	대졸 이상	222 (54.8)
직업	시간제단순직	78 (19.2)
	단순직	78 (19.2)
	사무직	102 (25.1)
	전문직	147 (36.2)
월 수입	200만원미만	186 (46.0)
	200-300만원	129 (31.8)
	300만원이상	90 (22.2)
	평균 (SD)	154 (125)
조부모 양육참여	참여안함	303 (74.8)
	참여함	102 (25.1)
자녀수	1명	72 (17.7)
	2명	258 (63.7)
	3명이상	75 (18.5)
	평균	2.0 (0.6)
자녀 출생순위	첫째	231 (57.0)
	둘째	129 (31.8)
	셋째이상	45 (11.0)
자녀 성별	남	228 (56.2)
	여	177 (43.7)
자녀 연령	4세이상	108 (26.6)
	5세	156 (38.5)
	6세이상	141 (34.8)
	평균 (SD)	5.0 (1.1)
자녀의 기질	순환편	177 (43.7)
	까다로운편	228 (56.2)

#### 4. 측정도구

##### 1) 자녀양육 스트레스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우리문화에 맞게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12문항),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많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완벽성

Hewitt와 Flett(1991a)의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 MPS)를 사용하였다. MPS는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성의 3요인으로 나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척도(15문항)만을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완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부모역할관

양명숙(1993)이 제작한 부모역할관에 대한 질

문지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등적 부모역할관 5문항만을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부모의 역할에 대해 평등적인 가치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 4) 부모효능감

Gibaud - Wallston (1977)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CS)를 토대로 하여 박성옥 (1992)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보육에 대한 만족도

Mann과 Thornberg(1987)의 어머니 죄책감 척도(MGS : Maternal Guilt Scale)의 하위 영역중 보육에 대한 만족도 요인 3문항을 선정하여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자녀 양육관 ;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조복희, 이진숙, 1998)를 참고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내포된 속담 12가지 중에서 인식정도가 높은 7개의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음을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각 연구문제 별로 적용한 통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의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 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인을 제거한 다음 생태학적 연구 모델 체계에 따라 각각의 독립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beta값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stepwise방식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취업모가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

취업모가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 실태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취업모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

요 인	취업모(n=405)	
	평균	SD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31.8	7.8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33.3	7.0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20.2	5.6
전체 양육 스트레스	85.3	17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85.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이 평균 5세이기 때문에 어린 영아를 돌보는데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보다는 직장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먼저 각 체계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시체계 변인 중 출생순위와 자녀수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인 중



<표 3>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취업모의 연령	-.24	-.04	-.65	-.13	-.05	-.01	-.06	-.01
취업모의 교육수준	.22	.08	.43	.15***	.41	.15***	.35	.13***
완벽성	.52	.21***	.71	.28***	.48	.19***	.46	.18***
부모효능감	-.70	-.47***	-.87	-.32***	-.69	-.19***	-.70	-.19***
유년기 행복도			-.94	-.09*	-.42	-.04	-.45	-.04
수입			.14	.03	.06	.04	.04	.03
배우자의 지지			-.79	-.15***	-.80	-.15***	-.83	-.16***
결혼 만족도			-.24	-.26***	-.17	-.18***	-.19	-.18***
자녀 수			.25	.10*	-.04	-.03	.50	.02
가족형태			-.25	-.007	-.14	-.05	-.11	-.02
자녀의 기질			.18	.18***	.18	.18***	.18	.18***
자녀의 성별			.36	.10**	.25	.07*	.23	.07*
자녀의 연령			.26	.01	-.15	-.04	-.68	-.04
직업 유형			.27	.01	.42	.02	.29	.02
직업 만족도			-.44	-.05	-.46	-.05	-.38	-.04
조부모양육여부					-.08	-.02	-.73	-.02
보육 만족도					-.45	-.45***	-.45	-.45***
부모역할관							.50	.09*
자녀가치관							.15	.04
중다상관R	.4496		.6445		.7550		.7596	
R <sup>2</sup>	.2021		.4154		.5701		.5769	
R <sup>2</sup> 증가량			.2133		.1547		.0068	
F	25.33***		18.42***		32.16***		29.24***	

\*p<.05, \*\*p<.01, \*\*\*p<.001

자녀수 변인만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된 변인을 제거한 후, 각 체계 변인들을 생태학적 체계에 따라 각각의 독립군으로 묶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여, beta의 t값이 유의한 변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위의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첫 번째 모델I에서 유기체 변인군의 취업모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완벽성과 부모효능감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체 변인군의 설명력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II에서는 미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지지, 결혼만족도, 자녀의 기질, 자녀의 성별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2%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1%의 설명력 증가를 나타냈다.

모델III에서는 중간체계 변인군을 추가하여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보육만족도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

에 대한 설명력이 57%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5%의 설명력 증가가 나타났다.

모델Ⅳ에서는 거시체계 변인군을 추가한 결과 부모역할관 변인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설명력은 58%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0.7%의 증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른 체계변인이 통제되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교육수준 변인을 포함한 완벽성, 부모효능감 변인과 같은 3개의 유기체 변인과, 유년기 행복도, 배우자의 지지, 결혼만족도, 자녀수, 자녀의 기질, 자녀의 성별 변인 등 6개의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인 보육만족도 변인과 부모역할관이라는 거시체계 변인등 총 11개의 변인이 추출되었다.

이상의 11개의 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의 다음 단계로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11개의 변인에 대해 stepwise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개의 변인 중에서 약 1%이상의 설명력을 지닌 변인은 모두 7개의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7개의 변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 변량은 약 56%이며, 이중에서 '보육만족도'가 3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이 8.2%, '결혼만족도'가 5%, '배우자의 지지'가 1.4%,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1.9%, '부모효능감'이 1.6%, '완벽성'이 2.9%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의 보육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5873).

또한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951), 결혼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beta=-.2096),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반대로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가 높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배우자의 지지가 낮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649),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24).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beta=-.2154)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완벽성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1933), 이는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완벽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느끼는 고통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Mitchelson et al., 1998)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녀의 기질, 교육수준, 완벽성 변인은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보육만족도,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부모효능감 변인

<표 4>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중다상관계수 (R)	결정계수 (R <sup>2</sup> )	R <sup>2</sup> 의 변화	F값	회귀계수 (beta)
보육 만족도	-.5873	.3449		212.23***	-.5873
자녀의 기질	.6533	.4269	.0820	149.72***	.1951
결혼 만족도	-.6912	.4777	.0508	122.28***	-.2096
배우자의 지지	-.7017	.4925	.0148	97.04***	-.1649
취업모의 교육 수준	.7156	.5122	.0197	83.78***	.1524
부모효능감	-.7264	.5277	.0155	74.13***	-.2154
완벽성	.7459	.5564	.0287	71.15***	.1933

\*\*\*p<.001

은 양육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인간발달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함으로써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평균 5세사이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영아나 유아를 돌보는데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보다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양육을 하는데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34.5%를 설명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녀의 기질'이 8.2%, '결혼만족도'가 5.1%, '배우자의 지지'가 1.5%, '교육수준'이 1.9%, '부모효능감'이 1.5%, '완벽성'이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생태학적 체계에 의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 자신이 지닌 특성변인인 유기체 변인(교육수준, 부모효능감, 완벽성)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미시체계 변인(자녀의 기질,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과 중간체계 변인(보육만족도)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생태학적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중간체계 변인인 보

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며 체계적인 보육제도의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으나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결혼만족도로 나타났으므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역할 부담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들이 직장과 어머니로써의 역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여성을 어머니나 아내로만 보려는 고정적 여성상에서 탈피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취업모를 지원할 수 있는 직장에서의 부모 휴직제도, 근무조건의 융통성,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실시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통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많은 변인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각각의 변인에 대해 적은 수의 문항을 가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 변인이 설명해야 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계층간, 문화적인 차이를 지닌 민족간의 비교 문화적 접근에 대한 후속연

구가 요망된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취업모 자신의 특성인 유기체 변인뿐만이 아니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및 사회, 문화적 가치관과 같은 거시체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생태학적 접근방법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즉 과거의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려는 연구들이 주로 행해졌으나 이는 취업모에 대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식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접근에 의한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외부 환경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취업모, 양육 스트레스, 생태학적 접근

##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8). 3세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1997). 어머니의 역량·부모역할관과 양육스트레스. 우석대 논문집 제19집. 267-284.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5호. 141-150.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권 9호. 49-62.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호.
-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경임·강희경(1995).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 선미정(1995). 취학전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15집.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명숙(1993). 부모 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1) : 부모역할에 대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1(4). 53-66.
- 유성은·권정혜(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V16(2). 67-84.
- 윤미림·이기영(1995). 취업주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갈등과 이에 대한 관리전략. 서울대 생활과학 연구.
- 윤중희(1991). 가족학 연구와 가족 생태학적 접근,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한국 가족학 연구회, 교문사
- 윤중희(1994). 아동가족 연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적용, 인간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 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 영(1986).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관리 현황 조사. 아동학회지. 7(1). 1-23.
- 이옥주(1986). 가족의 긴장과 극복책략에 관한 고찰. 서울 여자 대학 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 2권. 50-61.
- 장병옥(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이희자(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18권 2호. 23-28.
- 정진경(1981). 어머니가 키우는 아이와 탁아소에 다니는 아이. 우리 아이들의 육아 현실과 미래. 서울: 한울.

- 조복희 ·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한국 아동학회지*, 19(1). 5-26.
- 조혜승(1996).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동숙(1989). 부부간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1호. 165-179.
- 최승순(1987).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우울성향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0b). *Parenting Stress Index / Short Form*.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rnett, R. C., & Baruch, G. K.(1987). Social roles, gend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 In R. Barnett, L. Biener, & G. Baruch Eds, *Gender and Stress*. New York : Free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nard, J.(1976). Stress and the family. *Journal of home economics*. 68(5).
- Burke, W. (1978). The development of a technique for assessing the stresses experiences by parents of young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Creasey, G., & Jarvis, P.(1990). *Parents of toddlers :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yles, concepts of development and parenting stress*,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f Human Development, Richmond, Virginia.
- Deater-Deckard, K., & Scarr, S.(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4, 449-468.
- Gelfand, E. M., & Teti, E. M., & Radin Fox, C. E.(1992). Sources of parenting stress for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of infa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262-272.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1988). Fathers and children :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No. 1, 82-91.
-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s of the fathers,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ed. M. E. Lamb,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vee, Y., Sharlin, S., & Katz, R. (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14-135.
- Levy-Shiff, R. Israela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Mitchelson, J. K., & Burns, L. R. (1998). Career mothers and perfectionism: stress at work and at ho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477-485.
- Neal, M. D., Chapman, N. J., Ingersol-Dayton, B., & Emlen, A. C.(1993). *Balancing work and caregiving for children, adults, and elders*. Newbury Park : SAGE.
- Solis, M. L., & Abidin, R. R.(1991). The spanish version parenting stress index : a psychometric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372-378.
- Turner, R, J., & Avison, W, R. (1985). Assessing risk factors for problem parenting :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81-892. Webster - Stratton, C.(1990). Stress: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02-312.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19, 302-312.
- Wilton, K, & Renaut, J.(1986). Stress levels in families with intellectually 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and families with non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Research*, 30. 163-169.